“禪명상, 사회적 마음챙김 대중성 담아야”

오용석 교수, 종학연구소 학술대회
‘선명상의 의미와 적용’ 주제 발제
내면몰두보단 현대사회 요구 살펴
이타 실천 담긴 대승정신 담겨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禪명상의 현대적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K-명상의 세계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선명상은 우리의 내면만을 통찰하거나 자신만의 안심에만 머물지 않고 소외된 존재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살필 수 있는 매개가 돼야 한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가 5월 2일 서울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선명상은 한국불교의 신행·수행에 나타난 통합적 성격을 반영할 뿐 아니라 선불교의 대승불교적 사상과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명상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수행, 보살행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禪명상의 현대적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개최한 이날 학술대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진하는 K-명상 대중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용석 연구교수는 ‘선명상의 의미와 적용’을 주제로 한 이날 발제에서 사회적 마음챙김과 보살행 그리고 이타적 실천을 아우르는 대승정신이 담긴 선사상을 강조하고 선명상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했다.

오 교수는 “한국불교의 신행·수행은 통합적 측면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전통을 포괄하고 있기에 선명상이라고 해도 전통적인 간화선만이 아니라 여타의 수행 전통과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대중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마음챙김을 지향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개인주의로 환원시키거나 내면적 통찰에만 몰두하며 ‘사회’라는 범주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명상과 K-명상을 통해 추구하려는 목적이 한국불교 전통의 신행·수행문화의 복합성, 관계치유의 조화, 사회적 마음챙김을 통한 상업주의의 극복, 공동체성의 회복 등 불교 본연의 가치를 살리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선과 명상이 공존하는 시대, 새로운 정신문화가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한국 전통 선불교와 현대 명상 전통의 융합·통합적 진행 △사상적 근거로서 선어록이나 선사상 반영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 오 연구교수는 “시대 기류에 따른 인스턴트화된 명상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불교가 갖고 있는 정신문화의 보편적 관점에서 교정해 나간다면 그때의 선명상은 순도와 밀도가 담보된 명상문화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교수는 “‘K-명상’이 아닌 ‘K-불교명상’을 용어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K-명상이라는 용어는 현재 불교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서 임의적 개념을 정의해 사용하고 있기에 결국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교명상의 보편적 가치 아래 존재하는 한국불교는 K-명상이라는 특수성 속에 불교라는 이름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명상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진본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국외 명상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자헌 스님, 동국대 교법사) △명상앱 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은산 스님, 동국대 치유와 행복융합연구원) △고려대장경의 선관(禪觀) 경전 고찰(이진영, 동국대 역경원) 등이 발제됐다.

청년음악가 120명이 펼친 ‘불교 음악’ 향연

4월 28일, 조계종·봉은사 주최
불교음악원·상월결사 주관으로
예불음악·찬불가·무용 등 선보여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 발원


청년음악가들이 봉은사서 열린 ‘찬불음악축제불교’에서 한국 전통 예술과 현대 대중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

청년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한국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치며 청년 전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모처럼 봉은사를 찾은 지역 주민들과 외국관광객, 대학생들은 청년들의 신나는 공연을 함께 즐기며 불교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가 주최하고, 불교음악원과 상월결사가 주관한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대학생찬불음악축제’가 4월 28일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개최됐다. 음악회에는 단국대·동국대·서울대·용인대·이화여자대·중앙대·추계예술대·한국예술종합학교·한양대 등 수도권 9개 대학, 120명의 대학생이 출연해 풍물놀이와 예불음악, 무용, 국악관현악, 찬불가 무대를 선보였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대학생찬불음악축제’가 불교음악의 가치 확산과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대학생들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청년세대에게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며 “나아가 전국 대학의 음악 전공자들에게 불교음악 장르의 공연예술을 경험시켜 그 가치를 끌어올리고, 앞으로 이들이 불교 예술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도자 발굴과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중앙대 중앙타악연희단의 흥을 돋우는 사물놀이로 시작됐다. 이어 한예종 전통예술원 성악·무역 전공자들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은 불교의식 ‘칠정례’를 노래했고, 불교의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비무와 승무를 함께 선보였다. 박혜인 한양대 학생의 ‘리플렉션(Reflection)’ 생황 연주와 이빛나 봉은사 우담바라 합창단 지휘자와 강승완·이정인·홍하나 중앙대 성악과 학생들의 ‘백년을 살지라도’ ‘지금 이 순간’ ‘축배의 노래’ 성악 공연도 펼쳐졌다.

전소현 서울대 학생은 수륙재, 영산재, 생전예수재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태평소로 ‘호적풍류’를, 최민동국대 박사과정 학생이 퉁소협주곡 ‘풍전산곡’을 연주했고, 동국대 학생들이 ‘경기 뱃노래와 남도 뱃노래’로 흥겨운 우리가락을 들려줬다.

상월선원청년합창단의 ‘시즌 오브 러버(Season of lover)’ ‘한걸음 더’ 음성공양과 세계 3위 비트박서 스테이의 현란한 비트박스, 상월비보이단 이에이트쿠루의 화려한 비보잉 퍼포먼스도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국악 아이돌 소리꾼 김준수(국립창극단)의 ‘어사출두’와 ‘더질더질’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전 출연자가 찬불가 ‘부처님 법 전해요’를 노래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했다.

김내영 기자

“기차 타고 떠나요 템플스테이로”

6월 8일, 8개 사찰 ‘테마 여행’
팔도장터·관광지도 연계 구성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기차와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문화사업단과 코레일 관광개발은 6월 8일 반야사(충북 영동), 영국사(충북 영동), 용화사(충북 청주), 갑사(충남 공주), 신안사(충남 금산), 마곡사(충남 공주), 도리사(경북 구미), 직지사(경북 김천) 등 총 8곳 템플스테이 사찰로 떠나는 테마 열차를 운영한다.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은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기존에는 운행하는 열차의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처음 열차 전체(6량)를 템플스테이 주제로 운행한다.

이번 상품은 8개 사찰 템플스테이 체험과 팔도장터·관광지 방문으로 구성된다. 반야사는 월류봉과 영동와인터널, 영국사는 옥계폭포와 레인보우힐링센터,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용화사는 초정행궁과 문화제조창, 전국 5대 재래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을 연계했으며, 갑사는 용문폭포와 공주산성시장, 신안사는 깻잎 유기농 쿠키체험과 금산 국제인삼시장을 둘러본다. 직지사는 김천치유의숲 코스가 포함돼 숲길 맨발걷기와 숲트레킹을 경험할 수 있다.

경비에는 서울역에서 탑승 후 왕복열차와 관광지간 연계 차량(버스), 템플스테이 참가비 등이 기본 포함돼 있다. 여행 코스에 따라 지역 맛집에서의 식사가 제공되기도 한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이 증정된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원하는 사찰을 선택할 수 있고, 중간중간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어 짧은 여행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참조. 1544-7755

김내영 기자

대불련·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 MOU

대학생·청년 전법 활성화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 대불련)와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연수원장 선일 스님)이 4월 29일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회원의 심신 안정과 대학생 청년 포교·전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및 회원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청년의 문화체험 및 정서함양 교육(사찰탐방, 명상프로그램, 캠프, 수련회 등) △기타 양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사항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주현우 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대학생이 낙산사에서 위안을 받고 힐링하고 신심 깊은 불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율동대회 참가자 모집

5월 26일까지, 영상 제출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맞아 개최하는 ‘청소년 바라밀다 율동대회’ 참가자를 5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초·중·고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파라미타 노래 1, 2 또는 연등회 노래 15집 노래 중 1개를 선택해 율동을 창작한 영상과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paramita002@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인 봉축위원장상에는 장학금 30만원이, 금상인 동국대 총장상에는 장학금 20만원이, 은상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총재상에는 장학금 10만원이, 동상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상에는 장학금 10만원이 수여된다.

김내영 기자

동대부여중·고, 2025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동국대 이사회서 만장일치 승인
학령인구 급속 감소 따른 조치

동대부여중과 동대부여고가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특정 성별만 받는 학교의 경우 향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4월 30일 서울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55회 이사회를 열어 ‘동대부여중·고 남녀공학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을 논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사진〉 이사회에는 이사 13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여중·여고 신입생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몇 차례 보고 받은 바 있다. 한 학기에 한 반씩 줄여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교직원과 학부모, 법인 등 관련 주체가 1년간 활발하게 논의했고, 남녀공학 전환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동대부여중·고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 감소 예측, 학교 교육에 있어 학교 경쟁력 약화 초래 △남녀 성비 불균형 심화 △학교 인근 거주 남·여학생 원거리 통학으로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교직원 회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4월에도 동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사회 의결과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에 따라 이들 학교는 5월 말까지 남녀공학 전환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전국여성불자회, ‘쓰담순례’ 성료

4월 27~28일, 화엄사 일대서
직능·교구 회원 함께 걷고 소통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는 4월 27~28일 구례 화엄사 일대에서 ‘화엄사 어머니의 길 쓰담순례’를 진행했다.〈사진〉 ‘수행, 전법, 환경, 봉사’의 메시지를 담은 회원 순례프로그램으로, 직능·교구 회원들이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전국여성불자회 지도법사이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여성이자 어머니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여성불자들에 의해 한국불교 1700년이 이어져 왔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앞으로 백년, 천년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입재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화엄사 창건조로 효심이 지극했던 연기조사의 이야기가 담긴 사사자삼층석탑 참배와 화엄사에서 연기암까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었다는 전설이 담긴 ‘어머니의 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끼고 마음을 쓰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리산호수공원캠핑장으로 자리를 옮겨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별빛명상 야단법석’ 프로그램도 열었다. 둘째 날, 새벽 4시에는 새벽예불과 금강경 독송 기도로 각자의 서원을 되돌아본 후, 사성암과 천은사 순례로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내영 기자


대상을 수상한 봉은사 소년소녀합창단 모습.

불레협, 연꽃노래잔치 성료

4월 28일, 총 9팀 참가
대상엔 봉은사 합창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장 스님)는 4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2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했다.

노래잔치에는 수국사, 문원초, 정덕초, 경국사, 전국비구니회 법룡사, 진관사 가릉빈가 합창단, 조계사 소년소녀합창단, 봉은사 소년소녀합창단 등에서 어린이·청소년 70여 명이 참여했다. 대상인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장 조계종총무원장상은 봉은사 소년소녀합창단에게 돌아갔다.

김내영 기자